

“향후 100년 포교비전 수립 시대 맞는 불자상 정립할 것”

신임 포교원장 지홍스님

“종단의 일이 곧 포교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포교가 중요하지요. 하지만 앞으로 종교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제반 여건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10년, 20년, 더 나아가 향후 100년을 바라보며 포교비전을 수립하고 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집무실에서 만난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스님(사진)은 이 같이 계획을 밝혔다.

3월15일 신임 포교원장으로 선출된 지홍스님은 “모든 이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 길을 떠나라”는 부처님의 전도선언이 곧 제대 포교원 집행부의 포교정책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지홍스님은 ‘이 시대에 맞는 불자상(像)’을 정립하기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불자라면 이런 사람이어야 한



한 현실을 타파하기 위한 방편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인층 불자의 상당수가 젊은 때부터 열심히 기도해 왔지만 거동이 불편하면 사찰을 찾는 게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타종교는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선교해 노인뿐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자연스럽게 선교해 가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스님의 설명이다. “‘어르신돌보미법등’ 운영과 요양원 설립 등을 통해 평생 불자로 사신 분들을 사찰이 계속 돌봄으로써 고령화문제 뿐만 아니라 가족포교, 더 나아가 사찰의 안정적인 수입구조에도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20년 전 종단 개혁을 통해 포교원 별원화를 추진했던 주축 인사 가운데 한 명인 지홍스님은 포교원장 소임을 맡게 된 만큼 시대에 맞게끔 종법령 개정, 조직 개편 등 하드웨어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웰빙·힐링·명상 등의 문화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포교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현실을 탈바꿈하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새로운 변화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8월 열리는 브라질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의 선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포교원장 스님은 포교는 스님과 불자로서의 당연한 사명인 만큼 너나 할 것 없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침체기를 겪고 있는 포교신행단체들이 지도법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스님들이 앞장서 이들 단체의 지도법사를 맡되, 책임감을 갖고 지속적인 집중적으로 포교해 주길 부탁했다. “빠듯한 예산과 인력난 등 포교원 행정에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구본사나 지역불교계에서 관내 대학생포교, 군포교 등을 책임감 갖고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포교원도 지역의 소중함 불교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갖추고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사진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월30일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성금 1000만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총무원장 스님은 이날 복지관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합장주도 나눠주며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복지에는 여야 없다” 총무원장 자승스님, 신길복지관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3월30일 서울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나눔기금 1000만원을 전달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문은 매달 한차례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위로하는 ‘자비나눔’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총무원장 스님은 복

지관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합장주도를 나눠줬다. 총무원장 스님은 복지관 관계자는 물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인과 기관장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복지에는 여야가 없는 만큼 모두가 힘을 모아 지역 주민들의 복

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조계종이 운영하는 신길복지관은 중국 등 다문화 가정인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이 활발히 전개하며 지역 복지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허정철 기자

충분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기금 모연 명단 (2016년 3월 16일~2016년 3월 29일)

□기금 : △김포 중앙승가대학교(총장 원행스님) 5000만원 △부산 광명사(주지 무아스님) 300만원 △양양 낙산사 흥련암(회주 정념스님) 200만원 △서울 봉은사 국장 스님 일동 100만원 △서울 흥천사(주지 정관스님) 50만원 △곡성 견성암 50만원 △김봉목 20만원 △부산 장곡선원(주지 원여스님) 10만원 △이세재 10만원 △박기범 10만원 △박소영 10만원 △박희문 10만원

△자인스님 5만원 △김상기 5만원 △홍민표 5만원 △진재원 1만원 △오재은 1만원 △신성임 5000원 △무기명 5000원 (총 5788만원)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해드립니다.

○모연계좌 :
농협 301-0160-9713-71 (재)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국민은행 023501-04-221144 (재)대한불교조계종

선학원 문제 공동대응 ‘결의’ 정상화추진위·전국비구니회·선미모 동의서 합의…전국순회 서명 받기로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범등스님)와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스님),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선미모, 상임대표 범상스님)이 선학원 사태 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기로 뜻을 모았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조계종단과 선학원 현안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동의서’에 세 개 기관이 서명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 개 단체는 “조계종단과 선학원은 한국불교를 수호하고 대중화를 염원하는 종단으로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

다”면서 “대화를 최우선으로 하고 불교 발전을 위해 현안문제를 적극 해결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종단에 △징계를 받은 선학원의 임원 사면 △선학원 특별교구 지정 △원로 의원과 중앙총회의원 배정 △법인법에 의한 법인등록이 아닌 선학원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선학원 측에도 △조계종 총지중통을 봉대한다’는 조항 등을 원상 복구해 종단과 선학원이 정상화되도록 할 것 △조계종과 다른 별개 종단을 설립해선 안 되며, 현재 진행 중인 수계, 조계종 승적포기각서 요구 등 종단 △이사 3분의1은 분원장 중에서 총

무원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재단 임원(이사, 감사) 선출제도의 개선 △선학원이 분종 혹은 탈종하려고 하면 각 분원의 장건주, 분원장, 관련도제들로 구성하는 총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할 계획이다. 이러한 요구안을 놓고 전국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 관련 도제들의 동의 서명을 받아 총무원과 선학원 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전국비구니회 수석부회장 효경스님은 “6000여 명의 비구니 스님 가운데 20% 가량이 선학원 등록 사찰에 상주하는 만큼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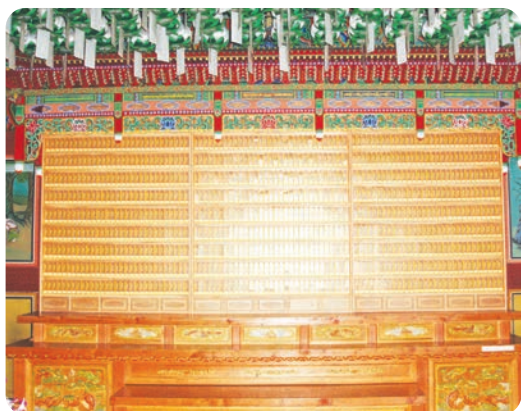


사찰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 자동 연등 승강 장치 |



| 인등·영구위패 시공 |



만 월 등



공 단 등



정품LED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5381-9355 / 010-9446-1862 / 전화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찬덕연등의 원천기술 및 제품생산능력을 보유한 유일한 회사입니다.